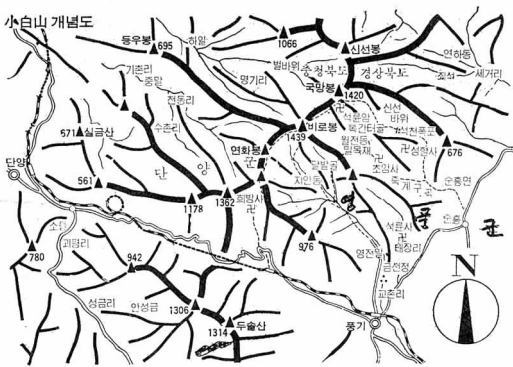


# 追憶의 小白山紀行

崔 光 烈

지금부터 10년전인 1976년 5월의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중순, 일행은 청량리역에서 2시경에 중앙선 열차를 탔다. 5·6명의 집단山行이 있었다. 6시가 다 되어 일행은 죽령(竹嶺)터널을 지나서 희방사(喜方寺)역에 도착하였다. 6km의 길을 한시간 반이나 걸어서 해가 거의 저물녘에 일행은 희방사가 있는 절아래의 소(沼)와 폭포가 있는 산속의 민가에 도착하였다.

이 민가는 여관이 아닌데도 민박을 업으로 하는 집이라 손님대우는 익숙했다 일행에는 鄭某, 洪某등 노장급도 있었으나 모두 혈기왕성한 편이 었다.



〈小白山 안내도〉

그때는 70년대 중반 그러니까 10년전의 일이라 이 기행문은 그때의 메모를 정리하여 지금에 이 글을 쓰다보니, 희방사 주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행은 민가의 마당, 평상 위에서 글자 그대



〈사진 : 필자〉

로 화기에애하고, 잡담에 깨가 쏟아지는 유쾌한 저녁식사를 했다. 주위의 공기도 어느덧 수목처럼 물기가 스민 듯 했고, 용연소(龍淵沼)에 떨어지는 물소리도 큰 폭포가 아니라도 조용히 들리고 있었으며 게다가 한잔 술에 모두 가벼운 흥취에 젖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5시에 일행은 소백산 縱走를 목표로 등산을 개시하여, 폭포 옆의 쇠사다리를 올라가서 희방사가 있는 넓은 공간을 보고, 늘

랐다. 이러한 험준하고 바위로 하여 단절된 윗쪽지대에 넓은 공지가 있고 거기에 희방사가 서있으니 누가 그 아래목에서 이곳을 상상했을까. 신라중기 선덕여왕 때 이 절을 지었다는 俗姓 崔氏의 杜雲선사의 그 지략(智略)이 자상하다 생각했다.

1만大軍도 가히 이 山寺를 넘볼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며, 孤雲 崔致遠이 말년에 신라의 기우러짐을 보고, 고려건국을 위해 이곳에 와서 협력했다는 說話가 절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도 결코 허황된 말같지가 않았다.

一行은 산을 올라 서남쪽의 연화제2봉을 바라보며 한길로 東走를 시작했다. 남쪽으로 멀리 豐基일대의 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1,300높이의 능선길을 달리며 가파른 남쪽 벼랑과 북쪽의 벼랑이 5월의 한껏 푸른 산천을 기막히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였다.

이 소백산 능선길은 먼저 제1연화봉(1,394m)을 지나서 철쭉나무와 작은 바위가 마치 인공적으로 조경을 해놓은 庭園처럼 꾸며져 있어서 퓌어나, 묘미를 보여주고, 또한 능선길에서 만난 淑明女大生들의 한 무리가 마치 도시공원이 바위외자에 모여앉은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는 우리가 어느 山頂을 헤매고 있음을 잊게하였다.

일행은 가끔 쉬다가도 계속 내친 걸음으로 혹은 비탈길의 숲속 白樺나무의 고운 木皮를 만지며 가고 또 달렸다. 이 능선길은 그야말로 철쭉꽃밭의 아름다운 풍경의 연속이요, 비로봉이 있는 정상에 이르는 길목의 푸른 초원과 북쪽 비탈의 朱木은 특수 群落 지대로 지금까지의 능선과는 또다른 경관을 보여주었다. 一行이 정상쪽의 잔디밭 위에 앉아 가벼운 간식을하고 있는데, 그 아랫길을 완전 등산장비를 갖춘 한 젊은 여인이 혼자 우리가 온 코오스를 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놀랐다. 그 주위에는 우리 一行과 함께 앞서거나 뒤서거나 따라온 여대생 一行 외에 그 逆코오스에서 온 사람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심결에 야호 —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녀는 우리 쪽을 올려다 보고 밝은 미소에 손을 들어 흔들며 그대로지나가 버리지 않는가. 여성산악인 치고는 꽤나 세련되고, 대답한 여인이라 나는 꿈꿈이 생각했다.

우리가 아침 희방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11시경, 곧 마주 보이는 비로봉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온 코오스는 분명 우리가 가려는 石崙庵에서 하루를 묵었어야 지금 이 시간에 이곳까지 올수가 있고 또 너·대시가 되어야 희방사에 도착하는 길을 혼자 걷다니 ...

우리 一行은 서로 몇마디 잡담을 주고 받았다. 이곳 초원지대에는 다른 어느 능선길에도 보지 못하는 화려한 꽃잔치가 경연하고 있고, 특히 고산식물인 애델바이스(솜다리)가 주변에 봄부터 밀생하여, 환겨울에는 눈속에 그 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특수한 꽃이기도 하다.

이 소백산을 우리가 걸어온 비로봉까지는 그 양쪽이 험준한 비탈이어서 새로 올라오는 길도 계곡도 없다. 다만 비로봉 동쪽에서 國望峯(1420) 정상의 바위에 앉아 그 사이를 둘러보면 발아래의 초원지대에서 멀리 충북 단양군과 경상도영주군의 경계에 펼쳐진 1천m 이상의 山峯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一行은 국망봉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죽계구곡의 골짜기로 길을 잡고 우선 가파른 산길을 한참이나 내려가서 비로소 石崙庵이 있는 공지에 도착했다. 여기서 모두 허기진 점심을 먹는 것이 오후 2시가 지나서였다. 암자는 적으나 단체에 낫은 기와집이다. 이곳에는 더러 계곡을 따라 오른 등산객을 볼수가 있었다.

이 竹溪九曲의 코오스는 李退溪 선생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 죽계9곡의 歌詞를 지었다는 곳이기도 하고 九折羊腸의 골짜기에는 약수샘도 있고 石川폭포도 있고 구비도는 계곡마다 기암괴석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필자가 밟아본 계곡은 그렇게 심오하지도, 기기묘묘 하지도 않았다. 다만 5월중순 인테도 木蓮이 계곡의 중간 지점에 계속 자라나 마치 아치형의 굴속을 지나듯 머리위까지 양쪽 길목에서 교목의 가지가 뒤덮고, 또한 그 감미로우면서 새콤한 꽃향기에 정말 仙女境에 든듯한 정신착각을 일으키었다. 필자는 지금까지 산속에서 소백산 능선길의 철쭉꽃밭과 이 목련아치의 행렬은 일찍 보지 못한 화려함과 향기로운 미관임을 자랑하며, 소백산 등산은 5월중순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후 아직 겨울 소백산을 찾거나 가을 풍경을 보지 못해서 더 말할 수 없어 서운하다.

일행은 계속 계곡길을 걸어서 덕현리 마을에서 아람드리 세사람의 길이가 되는 느티의 고목을 쳐다보며 그 樹齡을 대강 4-5백정도로 추산하면서 다시 배점리까지 걸었다. 장장 40km의

등산코오스를 13시만인 오후 6시에 마을 버스 정거장에 도착하여 모두 구멍가게에서 맥주로 목을 추기는데 나는 길가의 양조장엘 가서 토주를 한바가지 얻어 마셨다. 물론 돈 1백원을 내어 놓아도 받지 않았지만 이 토주맛은 양조장인데도 시원하기 그지 없었다.

남의 땅에 가면 남의 땅 풍속을 따르라고 했던

가.

여기서 一行은 豊基로 나가서 一泊을 하게 되지만 이 지대는 李朝후기의 李重煥이 <擇里志>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토산물이 넉넉한 살기 좋은 곳으로 지명한 곳이라 그런지 안온한 곳이었다. 이튿날 一行은 서울로 향해 돌아왔다.



거미줄

## 自然保護의 調查研究

- 편 집 실 -

앞으로 10년, 20년, 자연보호 행정으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가? 를 묻는다면 이에 대한 여러가지 각양각색의 해답이 나올것이지만 나같은 주저할것도 없이 그것을 「自然에 관련된 調查研究」라고 말하고싶다. 이말은 일본의 국립공원협회 大井이사장의 말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에 이르는 약20년동안 일본은公害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크게 진전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自然보호 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뒤떨어졌다는 개탄이다.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크게 자성해 볼수있는 좋은 말이다.

國土의 어디에 어떤 귀중한 自然이 存在하고 있는가. 自然환경보전조사가 진행된지 오래된 일본의 경우에도 아직 判明되지 않은것이 많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특수지역 즉 변화가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있을경우에 실시하고있는 현황이기에 일본보다도 더 소극적이라 할수있다. 自然이란 너무나 넓고 또 속이깊은 것이다. 自然을 왜 수호해야하며 어떻게 지켜가야 할것인가. 이와같은 자연보호의 出發点마저 안개속을 헤매는듯하다 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具體的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바른말이지 자연보호측이나 개발측이나 충분한 이론 근거도없이 논쟁만 거듭하는 상황. 自然保護에

대한 研究를 필요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方法으로 조사연구를 추진할 것인가. 처음부터 中央에다 큼직한 연구기관을 두고 연구비도 충분히 투자해야 할것이라 한다면 現時点에서 기존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책도 제대로 못세우는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잠꼬대같은 소리라고 一笑하고 말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複雜한 自然과의 接近方式으로서도 좋은 方案은 되지 못할것같다.

여기에서 日本의 경우를 참고하고싶다. 日本의 石川縣에서 진행하고있는 「白山자연보호센터」를 엿볼까한다. 1973년에 그곳 中宮에서 활동을 개시 1981년 부나오山觀察소가 개설되고 1983년엔 本廳舍도 만들어졌다. 白山의 풍요한 자연을 연구하기위해 또한 利用者에게 그自然에대한 理解와 觀察의 場을 제공하기위해 그와같은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地域에 密着된 調査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地域密着의 연구가 중요하다. 道別도 좋고 國家的으로도 좋다. 그렇게해서 하나의 研究네트워크가 구축돼야한다. 앞으로 10년, 20년 걸려서라도 이와같은 자연보호 행정의 진척을 기대해본다. <珠>